

## 【 해외금융 뉴스: 북미 】

### AIG, 파생상품 처분 보류

□ AIG는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가장 큰 손실을 야기했던 파생상품을 완전히 처분하기로 계획하였으나, 최근 이를 변경하여 일부는 보유한다고 발표함.

- AIG는 금융위기 이후 미정부로부터 구제금융을 지원받으면서 모든 보유 파생상품을 조속히 처분하고 이들 파생상품을 관리했던 AIGFP(financial Products)는 가능한 빨리 폐쇄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음.
- 그러나 최근 80%의 주주의결권을 갖고 있는 미재무부·뉴욕연방은행에 파생상품 보유에 대한 자문을 받고, AIGFP를 감독하도록 임명된 파생상품 전문가들의 동의를 얻어 파생상품 중 일부는 보유하기로 결정함.
  - AIG는 보유하고 있는 파생상품의 15~25%(3천억~5천억 달러 규모)는 처분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고, AIG 본사 또는 외부 자산운용사가 AIGFP를 대신하여 파생상품을 관리하기로 함.
- 이와 같은 결정은 금융위기가 진정됨에 따라 빠른 속도로 정상화되어가는 AIG 그룹에 대한 경영진의 자신감 표출이란 의견이 지배적이거나, 800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결정했던 미국 의회는 이에 대해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임.

□ AIG의 일부 파생상품 보유는 리스크에 비해 수익이 커지는 경향으로 추세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파생상품을 서둘러 처분할 유인이 작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됨.

- AIG는 2008년 9월 현재 2조 달러 규모의 파생상품을 보유하였으나, 2009년 말에는 이들의 자산가치가 9400억 달러로 축소되어 50% 이상의 손실을 본 것으로 파악됨.
  - 보유 포지션으로 보면 2008년 9월 현재 44,000건에서 2009년 말 현재 16,100건으로 축소됨.
- 그러나 금융시장이 안정되고 파생상품 시장이 최근 호조세를 보임에 따라 파생상품 보유 리스크는 리스크측정 기준인 gross vega로 볼 때 2008년 9월 현재 13억 달러에서 2009년 말 현재 3억1천만 달러로 낮아졌고, 파생상품 보유로 인한 장부상 수익이 2009년 4/4분기 현재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등 파생상품 보유에 대한 유인이 커진 것으로 나타남.

(Financial Times, 2/18)